여성개발원 결별… 종단 '여성단체' 설립되나

조계종 포교원, 1월 28일자로 해지시행 공고… 사실상 해지
개발원 태생 '여성불자' 중심
정관서 '종헌종법 우선' 삭제
자율 운영 입장에 해지 공고
조계종 여성단체 창설도 관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이 여성포교를 위해 설립한 불교여성개발원이 포교단체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포교단체 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구랍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교원 최고의결기구인 포교원 회의에서 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다만 포교단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참회 과정을 갖도록 해지 시행일을 한 달 뒤인 2022년 1월 28일자로 한다"고 밝혔다.



2013년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3주년 기념식 모습. 후원에 표기된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한 종단 사찰들이 눈길을 끈다.

설립한 조계종과 왜 멀어졌나?

불교여성개발원이 개발원을 설립한 조계종 포교원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신임원장 선출을 위해 포교원에 김외숙 씨를 추천했지만 포교원은 2018년 8월 총무원장 등 3원장 사퇴를 촉구한 전국승려결의대회 참여 등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하지만 불교여성개발원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원장을 선출하고 정관 개정을 통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 권한 축소 및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 적용 조항도 삭제했다.

포교원은 이 이사회가 불법이며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하라고 지속 지시했지만, 불교여성개발원은 거부해 왔다. 이후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은 2021년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을 계기로 대화를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성개발원 탈종단 행보 '필연'

불교여성개발원이 탈종단 행보를 걸은 것은 2018년 사태 전에도 일어나고 있었다. 포교단체 해지가 사실상 시간문제였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여성불자 신행문화 혁신과 여성지도자 양성 및 네트워크를 설립 취지로 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처음부터 조계종 여성 종도 조직화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며 "개발원 임원진이나 여성불자108인회도 면면을 보면 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불심이 깊은 것이지, 조계종 종도 정체성이 강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자격검정을 하는 이들로 구성된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 다른 포교단체와 달리 이사를 비롯한 구성원 선임에 조계종과 관련된 자격검증도 없다. 2018년 사태 당시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진 태반이 조계종 신도증이 없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계종 여성단체 창설될까?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해지 후 자율적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관을 2019년도 개정 이전으로 바꾸라는 포교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포교단체 해지 사유로 하고 있지만 이는 개발원 자율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2019년도 개정 이전 정관이야 말로 2011년 포교원 지시에 따라 포교원장 스님 권한이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포교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정관을 이전 것으로 바꿀 순 없다"고 밝혔다.

불교계 대표 여성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이 독립 행보를 걷게 되면, 조계종 여성단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양성평등의 시대 흐름 속에 여성신도 조직화와 포교를 담당하는 여성전법단 혹은 여성신도단체 창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 측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8대 포교원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불교계 주요 영역인 '여성 포교'에 대해 포교종책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 한축 비구니 발전 위한 원년으로"

전국비구니회, 1월 6일 법룡사서 신년하례

올해 회관 건립 20주년
수행결사 · 복지 확대도

임인년 새해를 맞은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올한해 한국불교 한 축으로서 비구니 위상과 발전을 견인하는 원년으로 삼아 진력할 것을 발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월 6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는 임기 내내 비구니회관에 상주하며 많은 성과를 낸 12대 회장 본각 스님과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이 지난 2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짚어보고 부족함을 채우는 다짐과 서로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법석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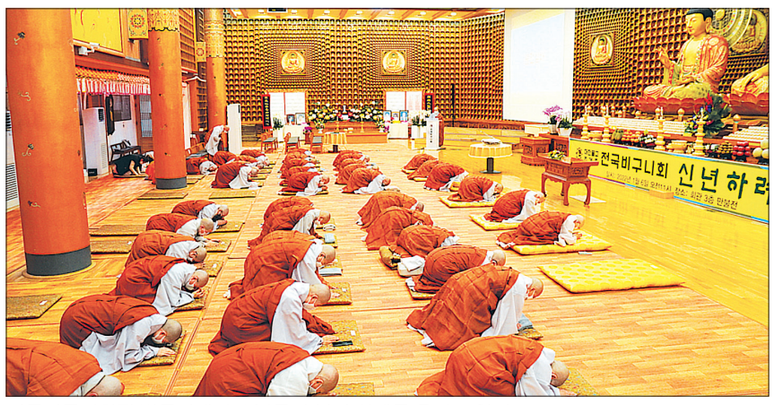
선원장 성본 스님의 헌향, 지회장 일지 스님의 헌다, 종회의원 철우 스님의 헌화로 시작된 하례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이 진행됐다. 또 불전 삼배와 회장 스님을 향한 하례에 이어 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수석부회장 현정 스님의 신년말씀으로 진행됐다.

회장 본각 스님은 임기 2년 동안 함께 한 12대 집행부, 그리고 전국비구니회에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전해준 모든 비구니스님들에게 재차 감사를 전했다.

스님은 "어려운 시기 함께 험난한 배를 타 주신 12대 모든 소임자 스님들께 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6000여 비구니 스님을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본각 스님과 소임자 스님들은 임기 내내 비구니회관 법룡사에 상주하며 비구니회 안팎으로 산적한 각종 과제와 업무를 맡아 코로나 시국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각종 법제개정과 조직 체계 개선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올해 건립 20주년을 맞는 비구니회관 곳곳의 노후된 공간을 개보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비구니 스님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과 정책 반영은 물론, 비구니 수행결사를 통해 비구니승가공동체 회복에도 나서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스님들이 불전 삼배를 올리고 있다.

본각 스님은 "2023년 상반기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하반기에는 차기 비구니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에 올해는 더없이 중요한 해"라며 "전국비구니회 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수행결사와 비구니복지 등 지난 2년간 미흡했던 과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발전토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스님은 "노후된 건물 곳곳을 수리보수하면서 20년 전 어른 스님들의 원력 덕분에 허허벌판이었던 이 공간에 비구니스님들이 모일 수 있다는 감사함에 환희심이 솟았다"며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덕분에 가사원이 공간을 이전할 수 있었고 사찰음식문화센터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공간 등도 추가로 만들어진만큼 20주년 기념행사는 어른 스님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는 법석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1월 11일 제12차 수행결사를 진행하는 한편, 1월 18~19일 상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열고 올 한해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명상, 낙관적 태도로 자살 예방 효과

불교상담개발원 '2021 자살예방' 결과보고서 발간

'늘봄', '온나' 프로그램 분석
자아낙관, 대인관계 등 개선
선업 스님 "적극 활용 기대"

불교의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확대 등을 통해 자살예방 뿐만 아니라 자살 고위험군과 유가족들의 사후 사회적응 등을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 조계종 포교부장)은 구랍 15일자로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펴내고 이를 최근 배포했다.

불교상담개발원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모 프로젝트로 2021년에는 '늘봄'과 '온나'라는 2종의 프로그램이 최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현장에서 진행됐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늘봄' 프로그램은 마음챙김 명상을 기본으로 총 8회 진행됐다. 1회당 80분 가량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18명이 참가했다.

'온나' 프로그램은 불교 12연기를 기반으로 WILL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매주 1회씩 총 8회로 구성됐다. 1회당 150분 가량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프로그램에는 20~30세 4명, 41~50세 1명, 51~60세 1명, 61세 이상 2명으로 총 8명이 참가했고, 남성이 2명, 여성이 6명이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사전대비 사후 우울-행복 개선은 15.9점, 자아존중감은 5.6점, 마음챙김은 18.3점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상승했다.

불교상담개발원측은 특히 유가족들의 행복 및 마음챙김 자각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특히 자살유가족을 비롯하여 고위험군과 자살시도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은 불교명상과 수행이 현대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반증한다"며 "자살예방과 함께 이들의 사회활동과 자아개발 등에도 함께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덕현 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산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현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부 장 석지현 국 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명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도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명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진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공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